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2장 첫 번째 일반 원리: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평생에 걸친 의무이다

『죄 죽이기』 제2장 「죄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 일반 원리」, 인쇄 42~56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묶으며 시작합니다. 신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죄의 권세에서는 이미 풀려났지만, 자기 안에 남은 죄의 권세는 평생 죽여야 합니다. 그 근거로 여섯 가지 이유를 차례로 듭니다. 죄는 늘 남아 있고, 늘 일하며, 내버려 두면 가장 큰 죄까지 자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고 성령과 새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 영혼이 무너지고, 이 일 없이는 거룩함에서 한 걸음도 자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일반 원리'를 확정한 뒤, 오웬은 빛과 은사는 넘치는데 죄 죽이기는 드문 당시 교인들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지 않는 삶이 자신과 이웃에게 끼치는 해악을 짚으며 장을 닫습니다.

📜 절별 정리

📜 1. 출발점: 해방된 신자도 평생 죄를 죽여야 한다

오웬의 첫 주장은 이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죄의 권세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안에 내재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는 일을 평생의 일로 삼아야 합니다. '죄 죽이기(mortification)'는 내 안에 남은 죄의 힘을 성령을 의지해 꺾고 약하게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는 거듭난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계속 죄로 끌어당기는 성향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보다 컸던 바울조차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서 빠질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 정죄의 권세에서는 해방, 내재하는 죄는 남음
2. 죽이라는 명령은 이미 살아난 신자에게 주어짐
3.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평생 계속됨
4. 바울도 날마다 몸을 쳐 복종시킴
5. “이미 죽었으니 안 해도 된다”는 핑계 불가

> **골로새서 3:5**
> 이 장의 중심 명령: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
>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 **골로새서 3:1**
> 명령의 대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골로새서 3:3**
>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명령은 유효함
>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 **골로새서 3:4**
>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도 이 일을 해야 함
>
>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 **요한복음 15:2**

>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9:27

탁월한 바울도 날마다 몸을 쳐 복종시킴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 2. 이유 1: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 안에는 언제나 죄가 있다

죄가 늘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죄 죽이기도 늘 해야 합니다. 오웬은 이 세상에서 계명을 완벽히 지키고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완전주의)을 언급합니다. 그들과 긴 논쟁을 벌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문제를 짚습니다. 그들은 계명 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있는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사람의 육신적 생각에 맞게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모르는 새로운 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오웬의 진단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만 알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오웬은 비유로 결론을 냅니다. 원수가 아직 살아 있는데 공격을 멈추는 군인은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죄가 있는 동안 싸움도 계속됨
2. 완전주의는 법의 기준을 낮춘 결과
3. 성경은 '아직 이루지 못함'을 말함

빌립보서 3:12

바울도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함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린도후서 4:16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진행형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전서 13:12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기에 어둠이 남아 있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베드로후서 3:18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어둠을 점점 걷어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3)

갈라디아서 5:17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 원하는 대로 못 함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1:8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임

로마서 7:24

신자는 여전히 '사망의 몸'을 지님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빌립보서 3:21

이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몸의 변화 때

>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 3. 이유 2: 내재하는 죄는 쉬지 않고 육신의 행실을 만들어 낸다

죄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활동하면서 '육신의 행실'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육신의 행실'은 죄의 성향이 생각·말·행동으로 드러난 열매를 말합니다.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죄를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죄는 조용해 보일 때도 깊이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죄가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악으로 끌어당기고, 선을 못 하게 하거나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건이나 사역이 죄에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웬은 죄가 우리를 이기든 우리가 죄를 이기든, 승부가 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하루 휴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지킨다면 그날은 쉬어도 좋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그런 날은 없다는 뜻입니다.

1. 죄는 늘 활동하고 잉태하고 유혹함
2. 고요한 죄는 깊이 흐르는 물
3. 악으로 끌고, 선을 막고, 교제를 훼방
4. 승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음
5. 안전의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싸움

로마서 7: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야고보서 4:5

오웬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시기하며 욕망하는 성향의 증거로 읽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갈라디아서 5:17

육체가 성령을 거슬러 원하는 선을 못 하게 함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14

욕심이 계속 유혹하고 죄를 잉태함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로마서 7:18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19

원하는 선은 못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히브리서 12:1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것, 곧 영혼을 훼방함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가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가 죄를 이기거나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 4. 이유 3: 내버려 둔 죄는 결국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간다

죽이지 않은 죄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무너뜨리는 큰 죄들을 낳습니다. 그 목록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고, 다윗의 경우도 그 예입니다. 오웬의 핵심 통찰은 "죄는 언제나 최대치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할 수만 있다면 더러운 생각이나 눈길을 간음으로 끌고 갑니다. 탐욕은 남을 짓누르는 압제로, 불신앙의 생각은 무신론으로 키워 갑니다. 죄의 첫 움직임은 대개 온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발판을 얻고 나면 조금씩 입지를 넓힙니다.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에 무감각해진 만큼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이 흐름을 막는 길은 죄의 뿌리를 시들게 하고 머리를 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이 일을 게을리하면 가증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죄는 언제나 가장 극단을 목표로 함
2. 눈길→간음, 탐욕→압제, 불신→무신론
3. 첫걸음은 온건해 보여 경계를 늦춤
4. 무감각해진 만큼 완고해짐
5. 막는 길은 뿌리를 시들게 하는 것뿐

> **갈라디아서 5:19-21**
> 죽이지 않은 죄가 맺는 열매 목록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히브리서 3:13

죄의 속임수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 파멸로 이끎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5. 이유 4: 성령과 새 본성이 주어진 것은 죄와 싸우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성령과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죄를 거스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7은 육체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도 말합니다. 육체에 성령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듯이, 새 본성에는 육체를 거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웬은 이 싸움을 게을리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꼬집습니다. 첫째는 부당함입니다. 한쪽 전사를 꽁꽁 묶어 놓고 다른 쪽이 마음껏 상처 내게 두는 싸움과 같습니다. 둘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쪽을 묶고 멸망시키려는 쪽을 풀어 주는 셈입니다. 성령과 새 본성을 날마다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원군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1. 성령도 육체를 거스르신다
2. 신자 안에는 두 성향의 실제 싸움이 있다
3. 싸우지 않음은 내 편을 묶는 어리석음
4.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원군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신다는 반대편 진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 1:4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정욕의 썩음을 피함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로마서 7:23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의 싸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6. 이유 5: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하면 영혼이 비참하게 무너진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고린도후서 4:16과 정반대가 됩니다. 속사람은 낡아 가고 겉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웬은 이것을 이렇게 그립니다. 죄는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이 되고, 은혜는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이 됩니다. 은혜는 꾸준히 쓰고 훈련하고 승리를 맛볼 때 마음에 머뭅니다. 내버려 두면 은혜는 시들고 정욕은 번성합니다. 그러다 죄가 크게 이기면 영혼의 뼈가 부러지고, 쇠약해져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게 됩니다. 오웬이 가장 슬퍼하는 예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예배에 열심이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세상적이고 냉랭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신앙에 먹칠을 하고 주변에 시험거리가 됩니다. 오웬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가?” 하고 묻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교만과 시기와 비판적인 마음 상태로 '죄 죽이기'를 하고 있어서, 진정 복음적인 죄 죽이기는 거의 사라졌다고 탄식합니다.

2. 쓰지 않는 은혜는 시들어 죽음
3. 패배가 쌓이면 일어설 힘조차 잃음
4. 경건하던 사람도 세상적·냉랭해질 수 있음
5. 율법적·비판적 죄 죽이기는 복음적이지 않음

고린도후서 4:16

정상 상태의 기준이며, 소홀하면 그 반대가 됨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한계시록 3:2

은혜에 속한 것들이 죽어 가는 상태

>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히브리서 3:13

죄가 마음을 완고하게 할 발판을 얻음

>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시편 31:10

죄로 인해 뼈가 쇠하는 영혼

>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51:8

죄로 꺾인 뼈

>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로 인해 병들고 상처가 썩는 상태

[3]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시편 41:12

하나님 앞에 서는 일과 온전함의 관계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사야 33:24

죄 사함과 병 없음의 연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요한이서 1:8

이룬 것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 7. 이유 6과 첫 번째 일반 원리: 거룩함은 죄 죽이기 없이 자라지 않는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의무도 있습니다. '거룩함(holiness)'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을 닮아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죄는 모든 거룩한 행위를 온 힘으로 막습니다. 그러니 정욕을 이기지 않고 거룩함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웬의 판정은 날카롭습니다. 거룩함을 향해 가면서도 죄의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일반 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는

죽이기의 참된 토대가 놓였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신자 안에도 죄가 남아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날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1. 거룩함의 성장은 신자의 의무
2. 죄 죽이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감
3. 저항이 안 느껴지면 타협 중일 수 있음
4. 십자가가 토대, 회심이 시작
5. 남은 죄 때문에 평생 날마다 죽임

> **고린도후서 7:1**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 **베드로전서 2:2**
> 젖을 사모하듯 자라 가라
>
>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 **베드로후서 3:18**
>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 가라
>
>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3)

> **고린도후서 4:16**
>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의무
>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8. 탄식: 빛과 은사는 넘치는데 죄 죽이기는 드물다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오웬은 당시 교인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복음의 빛이 널리 비치고 영적 은사도 많아졌습니다. 교인과 목회자 수도 놀랍게 늘었습니다. 어디서나 신앙 이야기와 좋은 설교가 넘쳤습니다. 빛과 은사와 신앙고백으로만 세면, 교회는 “누가 이 많은 자녀를 낳아 주었는가” 하고 놀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곧 죄 죽이기로 세어 보면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게으르고, 자기 자리에서 쓸모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화내고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면 그런 표지는 차고 넘쳤다고 오웬은 꼬집습니다. 겉으로 가끔 향락을 끊는 것을 신앙의 의무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더 많이 받은 신자들은 그 정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웬의 아픈 지적입니다. 다만 그는 남의 마음속 일을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1. 빛·은사·설교는 넘치던 시대
2. 죄 죽이기로 세면 신자는 적음
3. 게으름·시기·분노·교만이 흔함
4. 지엽적 절제조차 하지 않는 현실
5. 성령은 영적 질병을 고치려 주어짐

> **이사야 49:21**
> 오웬이 장절 없이 빌려 온 표현, 겉으로 크게 늘어난 교회를 묘사함
>
> 그 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 9. 죄를 죽이지 않는 해악 (1): 자기 자신에게

죄를 죽이지 않는 교인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연약해서 매일 짓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삶의 뿌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데 있습니다. '습관적 죄'는 반복되어 익숙해진 죄를 말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 괴로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회개를 주시려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죄를 합리화하는 데 쓰는 것은 반역이라고 오웬은 말합니다. 그는 당시 배교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문으로 나갔다고 진단합니다. 그들은 한때 죄를 깨닫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교리가 익숙해지자 은혜의 교리로 게을리한 의무를 정당화했고,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1. 일상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
2. 습관적 죄에 괴로움이 없는 것이 뿌리
3.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은 반역
4. 배교자 대부분이 이 문으로 나감
5. 익숙한 교리가 핑계가 될 때 위험

> **요한일서 1:7**
>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주어짐
>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디도서 2:14**
>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심
>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사도행전 5:31**
> 그리스도는 회개를 주시려고 높아지심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디도서 2:11-12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침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베드로후서 2:20

그리스도를 알아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얽매인 자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은혜의 교리를 죄의 핑계로 쓰는 것은 반역이다." (오웬 문장의 요지)

📜 10. 죄를 죽이지 않는 해악 (2):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죽이지 않는 교인은 다른 사람에게 두 가지 해를 끼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존경받는 교인이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만큼은 된다"며 안심하고 굳어집니다. 오웬은 그런 교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과 모든 일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방탕하지는 않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세상적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만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신령하게 말하지만 삶은 무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지만 세상에 맞춰 삽니다. 죄 사함을 자랑하면서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열심(zeal)'은 하나님과 신앙의 일에 대한 뜨거움인데, 죄 죽이기 없는 열심은 이렇게 비뚤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만 되면 다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거리가 먼 겉모습에서 그를 알지르며 신앙의 명성을 얻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1. 남들이 그를 보고 안심해 굳어짐
2. 열심은 있으나 인내와 의로움이 없음
3. 신령한 말, 세상적인 삶
4. 용서받았다 자랑하며 용서하지 않음
5. 겉모습 경쟁으로 남을 속임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내 안에 남은 죄의 힘을 성령을 의지해 날마다 꺾고 약하게 하는 일.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신자 안에도 남아 계속 죄로 끌어당기는 성향.

정죄하는 죄의 권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드는 힘. 신자는 그리스도로 이미 이 힘에서 풀려났다.

육신의 행실(육체의 일)
죄의 성향이 생각·말·행동으로 드러난 열매.

정욕(lust, 죄악된 욕망)
하나님을 거슬러 무언가를 끝없이 원하는 마음의 움직임.

새로운 본성(신성한 성품)
회심 때 성령이 심어 주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새 성향.

완고해짐
죄에 익숙해져 양심과 복음의 요구에 무감각해지는 상태.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

형식적 교인(professors)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넓은 의미의 교인. 역자는 거듭난 '신자'와 구별되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복음적 죄 죽이기
율법적 두려움이나 교만이 아니라 은혜와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는 죄 죽이기.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신자는 정죄의 권세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남은 죄는 평생 날마다 죽여야 한다.
- 죄는 늘 있고, 늘 일하며, 내버려 두면 가장 큰 죄와 완고함으로 자란다.
- 하나님은 이 싸움을 위해 성령과 새 본성을 주셨다. 쓰지 않으면 은혜는 시들고 영혼은 무너진다.
- 죄 죽이기 없는 거룩함의 성장은 착각이다. 저항이 없는 신앙은 타협일 수 있다.
- 은사와 빛이 넘쳐도 죄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은 은혜를 핑계 삼게 되고, 이웃은 굳어지고 속게 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2편 · 용서받았는데 왜 평생 싸워야 할까 · 죄 죽이기는 신자의 평생 의무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